

4) 농민지도층과 향촌사회 권력의 동향

위의 조직화를 주도한 지도자들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는가. 우선 순천농민운동의 4대 지도자로 손꼽히는 박병두·김기수·이영민·이창수를 보자.

박병두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인물의 자손인데, 강력한 문중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한학에는 매우 밝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례의 양반인 유제양(柳濟陽)과 그의 손자 유형업(柳潑業)의 일기에 따르면 박병두는 같은 서면의 친구인 김기수와 함께 유씨가(柳氏家)를 자주 찾았으며, 서울을 오가며 유학자들의 동향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다.¹⁾ 그와 김기수는 매천(梅泉) 황현(黃玹)을 흠모했다고 전해지는데²⁾ 매천이 자살하기 전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제양과 매천이 자주 어울렸던 것을 감안하면 교제할 수 있는 범위에는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김기수 역시 강력한 문중 출신은 아니었으나 한학에 배경을 둔 인물이었다.³⁾ 두 사람은 구례에 머물고 있던 유학자 김현두(金見斗)를 서면에 초빙하여 서당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창수는 원래 해남 사람으로 진도에서 3·1만세시위에 참여한 후 순천으로 이주하였으며 역시 한학에 박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농민운동으로 고초를 겪는 동안 생활이 곤란하여 부인이 식혜장사를 하여 간신히 생활했다고 한다.⁴⁾ 이영민은 한학과 서예에 조예가 깊었으며 순천가(順天歌)를 작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말한 대로 이창수와 이영민은 순천지방청년회의 간부로도 활약하고 있었으며 이창수는 기독교면려(勉勵)청년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들 4명은 정규교육의 배경이 없는데도 1920년대 초 주요 일간지의 지국장이나 기자로 일할 정도로 근대적인 지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전남동부기자대회를 주선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할 것을 결의토록 했으며, 4명이 함께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에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⁵⁾ 이들은 한학에 밝았으나 이영민을 제외하고는 순천의 대표적 성족(姓族)인 7성 8문 출신이 아니었으며, 역시 이영민을 제외하고는 지방 유생의 명부라 할 수 있는 향안(鄕案)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⁶⁾

앞서 언급한 대로 이들 4명은 임태유, 이길홍, 정영하, 김영숙과 함께 순천농민대회연합회를 발기했다. 이들 중 임태유와 정영하는 7성 8문 출신은 아니었으나 향교에서 큰 역할을 하던 유생이었으며, 이길홍 역시 향안에 등재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이길홍과 김영숙은 위의 4명과 함께 언론 지국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이들 중 이길홍은 순천지방청년회장, 동아일보 순천지국장을 역임하는 등 가장 화려한 활동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68명의 면 농민대회 대표들이 순천농민대회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이길홍을 선출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운동의 최고 지도층을 보면 정규 신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구학(舊學)에 바탕을 두면서 시대조류를 흡수한 농촌지식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성, 광주, 일본

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편, 『聚禮 柳氏家の 생활일기』 상권, 1991, 138쪽.

2) 김기수 조카 金種錫의 진술.

3) 김기수의 며느리는 광주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金貴先이며 서면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서울로 이주하였다.

4) 이창수 사위 허갑주는 일제 말기에 아들이 가축제품점을 경영하여 생활 형편이 다소 나아졌다고 한다.

5) 『동아일보』 1923. 9. 5 · 1923. 12. 17 · 1925. 12. 6 · 1926. 1. 16; 大和和明, 앞의 논문, 140쪽.

6) 순천의 최고 문벌을 나타내는 7성 8문은 玉川 趙 · 慶州 鄭 · 濟州 梁 · 木川 張 · 陽川 許 · 光山 및 陽城 李 · 尙州 朴氏로 구성된다.

등지에 유학하여 신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막 배출되기 시작한 1920년대 초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지도자들이 구학에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향권을 누려온 양반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진사의 아들인 임태유나 별량면에 기반을 둔 영광 정씨 가문 출신인 정영하 등이 있었지만 전통적 문벌로 손꼽히던 7성 8문은 군차원의 지도급 인사들을 그다지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른 사회적 활동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930년 순천에서 50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 2명만이 7성 8문 출신이었으며 6명만이 향안에 등재되었다.⁷⁾ 즉, 순천의 경제를 지배한 대지주들은 대체로 구양반층이 아닌 신흥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구성은 순천사회에서 가장 발언권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순천지방청년회의 면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7성 8문의 쇠퇴는 심지어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배해온 유교적 문화활동의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한 예로 순천향교의 직책을 맡은 인물들의 문중별 구성 가운데 7성 8문이 점하는 위치가 20세기 들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⁸⁾ 다시 말하자면 7성 8문으로 대표되는 구향족이 쇠퇴하고, 문중배경이 약하거나 양반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의 장이 장악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대지주 및 이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농민운동 지도층, 그리고 이 두 세력을 함께 포함한 청년운동의 영역, 나아가서는 유교적 활동영역에서까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농민운동은 경제적 모순의 해결을 부르짖고 억압의 사슬을 끊고자 하는 민중의 움직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세력과 인물들이 지방사회 내부의 세력을 둘러싸고 벌이는 다툼의 과정이었음을 아울러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20년대 문화정치라는 특수한 국면 속에서 지방사회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시험하는 하나의 계기였으며, 새로운 지방엘리트층을 형성해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향족의 쇠퇴가 하나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각 면의 농민운동 지도층은 해당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관계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순천농민대회연합회의 지도층과 달리 순천 최대의 성족인 옥천 조씨의 힘이 유달리 강했던 송광면과 주암면의 경우에는 옥천 조씨 문중의 성원들이 면 농민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송광면의 경우 고종 때 3명의 진사를 배출한 한실마을의 조씨 문중이 가장 유서 깊은 문중이라 할 수 있다. 송광면농민대회의 발기모임은 바로 그들의 세거지(世居地)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문중성원인 조정섭(趙正燮)이 회장으로, 조형섭(趙亨燮)이 부회장으로, 조규용(趙圭鎔)이 총무로, 조규식(趙圭湜)이 회계로 선출되어 농민대회를 장악했던 것이다.⁹⁾ 이 중 조규용은 순천농민연합회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하는 등 같은 문중 성

7) 金仁杰·韓相權 편, 『朝鮮時代 社會史研究 史料叢書』 2권, 보경문화사, 1986. 1920년에 작성된 順天郡 尊聖鄉案錄에는 총 358명이 등재되어 있다. 물론 7성 8문에 속하여야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교육 정도나 인물배출의 면에서 더 많은 성취를 보여준 문중들이 있다. 대지주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배경에서 한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교적 활동에 폭넓은 참여를 과시한 몇 명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중엽 이래 순천 지방사회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7성 8문과 여타의 문중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있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鄭勝模, 「書院, 祀宇 및 鄉校組織과 地域社會體系(1)」, 『泰東古典研究』 3, 1987, 149~192쪽.

9) 물론 강력한 문중배경을 갖지 못한 鄭寅華와 같은 인물이 큰 역할을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들 가운데에도 농민운동 지도층에 가장 깊숙이 진출했다. 인근 주암에서도 옥천 조씨 출신의 조정헌(趙廷憲)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수명의 조씨 문중 성원들이 요직에 포함되었다.¹⁰⁾

그러나 이들의 농민운동 주도가 그들의 현실적 지배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송광면 한실마을의 조씨는 권력과 부에서 이미 몰락을 경험하였다. 문중성원이었던 조규하가 한말 의병항쟁에 몸을 던져 전사한 후 한실마을은 경찰과 헌병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면의 운영에서도 지배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한실마을의 조씨가 낮추어 보아온 낙수(洛水)마을이 새로이 면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강화된 권력을 보유한 면장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 김기수와 이창수 등이 한실을 방문하여 조직결성을 자극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의병장을 배출한 문중으로서 갖는 자부심과 저항의식, 몰락에 대한 불만 등 농민운동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심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¹¹⁾

농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와 그들을 둘러싼 조건은 다양하였다. 낙안면에서는 낙안장터에서 3·1만세시위를 주도한 유흥주와 김종주가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3·1운동으로 확인된 민족주의적 열망은 1920년대 사회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유흥주와 김종주는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운동이 구체적 인물의 몸과 행동을 통해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원래 크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으나 3·1운동 후 특히 가세가 몹시 기울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타협적 항일의식과 일제 강점기의 경제적 몰락 및 어려움에 따른 불만이 농민운동 참여의 필수적 동기는 아니었다. 이미 지적한 대로 1920년대 문화정치에서 민족주의는 온건한 문화적 민족주의로 전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공공선을 표방하는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활동도 그 투쟁 정도와 무관하게 민족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운동은 바로 그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예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민운동도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운동의 초기 단계에서는 청년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와 명분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였다.

10) 『동아일보』 1923. 1. 24·1923. 2. 7.

11) 몰락한 향반이 농민운동에 참여한 또 하나의 예는 황전면에서 찾아진다. 이곳에 뿌리를 내린 옥천 조씨의 한 분파가 소유한 문중토지가 대지주 朴勝稷에게 경매되고, 다시 일본인 토지회사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자, 문중이 소유권 이전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 황전면농민대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趙燦英이었다.(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 1924년 民第1147-48號 판결 참조)

앞서 언급한 대로 농민회는 면내 유력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면단위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소작농민과 경제적 이해를 반드시 같이하지 않는 인물들, 예컨대 지주도 포함되었다. 송광면농민대회 부회장에 선출된 조형섭은 몰락해가고는 있었지만 지주였으며, 송광면농민대회가 조직되기 직전에는 지주회 모임에서 지주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소작인에게 양보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¹²⁾

지주로서 농민운동을 조직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상사면의 최익연이었다. 그는 30년간 소작과 자작을 거쳐 지주로 상승한 독농가(篤農家)였으며, 지주경영을 하는 동안에도 자작과 소작을 병행하였다. 수해로 파괴된 다른 사람의 논을 인부 73명, 소 11두를 동원해 복구하고 그 대가로 소작권을 획득할 정도로 개척심이 강한 영농가였다.¹³⁾ 그는 상사면농민대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소작료 4할의 모범을 보이고 다른 지주들에게도 이를 권장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들어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하지 않으면 소작인이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작료 인하가 지주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설득논리를 폈다. 그는 순천농민연합회 중앙집행위원이 되었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할 기회를 많이 얻었는데 그가 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영농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그의 신망을 높였다.¹⁴⁾

상사면농민대회는 면장인 허육의 지원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노동야학을 개설하고 농민대회에 기부를 하다가 농민대회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¹⁵⁾ 면장으로서는 농민대회에 다소라도 참여한 사람으로는 이밖에도 순천면농민대회 고문이 된 장효원(張孝元)과 황전면농민대회 고문이 된 조충재(趙忠材)가 있으나 이들의 직책은 의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대회에 참여한 지주·유지 가운데에는 운동에 해악을 끼친 사람도 있다. 낙안면의 조용현(趙溶鉉)은 800명의 농민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자 별도로 700여 명을 모아 독자행동을 하다가 양자가 합쳐 낙안면농민대회가 결성되었을 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연합회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지세의 지주부담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오히려 방해하다가 결국은 다른 지주들과 함께 지세를 내지 않은 소작인들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농민대회는 그를 사임시키고 이건을 회장으로 선출해 활동을 재정비했다.¹⁶⁾

12) 『동아일보』 1923. 1. 2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24년 民第749號 판결 참조.

14) 『동아일보』 1923. 11. 6·1924. 2. 27·1924. 10. 8·1925. 10. 6.

15) 『동아일보』 1923. 1. 24·1923. 4. 5·1925. 10. 16.

16) 大和和明, 앞의 논문, 135~136쪽.